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4년 11월 29일(금)
(윤력 10월 29일)
Пятница
29 ноября 2024 г.
№ 46 (12113)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26일(화) 사할린국립대학교에서 <아시아와의 대화>동계국제학교가 열렸다. (관련 기사 3면과 4면에 게재).

(사할린국립대 제공)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보충교육 콘퍼런스 열려

11월 26일(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2024년 학생들의 보충교육: 전략에서 전술까지>지역 콘퍼런스가 개최되었다. 사할린주 정부 알렉세이 벨리크 총재가 포럼 현장을 방문한 가운데 포럼에서는 사할린의 교육자들이 현대 공학, 연극활동, 언론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세대와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보충교육개발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학생들의 관심사에 따른 학교 동아리에서 이제는 재단하고, 바느질하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학생들은 로봇을 연구하고, 무인기를 조립하며, 무인기 조정기술을 향상시키고, 언론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며, 컴퓨터 그래픽을 하고, 연극을 비롯해 다른 많은 분야에서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

알렉세이 벨리크 총재는 <교육> 국가계획의 <모든 아이들의 성공> 연방계획 일환으로 보충교육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의 아이들이 보충교육 시스템에서 받고 있는 지식과 실력은 아이들이 직업을 선택하고, 우수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되게 한다. 우리 주민 모두가 성공할수록 지역은 더욱 빠르게 발전하고, 국

가는 더욱 강성해진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보충교육 시스템을 향상시키고, 사할린과 쿠릴의 어린 학생들의 재능과 적성 개발 및 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편리한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2024년에는 주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보충교육 분야에 재정적 지원이 상당히 확대되었다. 덕분에 138개의 공동개발프로그램에 따른 교육을 위해 새로운 장비가 구입되었고, 이 장비는 주내 17개 지방의 64개 학교들에 전달되었다. 그 결과 3000개의 보충교육 공간이 만들어졌다. 예전에는 학교에 장비를 갖추는 속도가 8배나 낮았었고, 2022년 -2023년에는 383개의 공간이 조성되었다고 알렉세이 벨리크 총재가 지적했다.

"선도적 첨단기술 분야는 보충교육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전문인재들이 필요하다. 이 인재들은 보충교육의 교사들을 준비시키며, 향후 이들은 학생들과 습득한 지식을 공유하고, 우리가 함께 공학과 발명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학생들을 발굴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을 개발해서 전문가가 되도록 도울 계획이다."라고 사할린주 교육부 아나스타시야 키르테와 장관이 말했다.

사할린주 정부, 특혜 의약품 구매를 위한 추가 자금 책정

사할린주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약값 특혜 의약품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약 2억 루블리를 추가로 책정했다.

<건강 안내자> 기획 시행차원에서 무료처방으로 자신의 특혜를 적극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와 유사하게 참고에 비추해둔 의약품들을 조기에 공급한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건강 안내자>운동본부와 만남을 갖는 중에 이런 상황에 대한 정보가 언급되면서 올해 환자들의 특혜 의약품 수요 공급에 추가재정을 긴급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건강 안내자'기획의 수석 실무자인 이리나 트로얀은 주지사에게 "주민들은 생활에 꼭 필요한 의약품을 비롯해 특혜 의약품 받는 시기가 지연되는 상황에 부딪혔다. 의약품들은 매우 비싼데 연금 수급자들은 이 의약품들을 구입할 여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주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하러 왔다."고 말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의약품 구매를 위한 예산액은 필수적인 정도로 책정되었다. 의약품 수요 증가 발생의 경우 의약품 공급 관리시스템을 검토하고, 추가자금을 책정하여 신속하게 충족시켜야 한다."고 했다. 올 한 해 특혜 의약품에 대한 수요 3분의 1이 증가해 이로 인해 수요에 대한 비공급이 발생했다고 주지사에게 보고됐다.

사할린주 정부 블라디미르 유슈크 부총재는 "특혜 의약품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지난해에 비해 3분의 1이 증가했다. 그렇다고 유사 의약품이 주민들에게 늘 적합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여러 겹의 불만이 제기되었는데 현재 실수를 만회하면서 이미 추가예산을 배정하고, 가장 필요한 의약품 71개 품목을 구입해 공급할 계획도 세웠다."고 설명했다.

'파르마피야(제약사)'의약품 도매무역 기업의 인나 그레베네와 사장은 의약품은 이미 구매돼 참고에 보관됐고, 여기서 약국들로 공급된다고 전했다.

(3 면에 계속)

단신

2025년 사할린 최저근로 임금, 2만2,440루블리까지 인상

러시아 최저근로 임금 인상법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지역 근로 임금 정도에 따라 사할린주에서 최저근로 임금이 16.6% 인상된다. 동시에 지역 수당과 사할린 지역에 적용되는 러시아 최저근로 임금 인상법의 가산율 덕에 최저임금은 4만7,100루블리부터 6만2,800루블리까지 다양하다. 특히 사할린 남부와 중심 도시들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4만7,124루블리부터 지급액을 가산한다. 오하와 노글리키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최저근로 임금으로 5만8,344 루블리를 받을 수 있고, 쿠릴열도의 주민들은 6만2,832루블리로 가장 인상적이다.

현재 사할린주의 최저근로 임금은 남부 사할린과 중심 도시들에서 4만408루블리이고, 노글리키와 오하 지역은 5만29루블리, 쿠릴열도 주민들은 5만3,878루블리를 받고 있다.

노글리키, 신축 주택에 90가구 입주

노글리키에 이미 수십 채의 노후주택에 거주하던 90가구가 5층 신축 다가구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다. 이들 모두가 이번 아파트 열쇠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새로운 아파트는 새 가구들을 맞이할 준비가 다 되어있다. 아파트에 들어가면 벽지가 도배돼 있고, 바닥은 리노륨과 타일이 깔려 있고, 출입구 설비, 방마다 문 설치, 배관과 온수기도 설치돼 있다. 건축자들은 주택 구역의 조경도 설계했다.

사할린주, 처음 공식 암벽등반대회 열려

<학교 암벽등반>연방기획의 일환으로 사할린주에서 암벽등반대회가 열렸다.

솔로비유카 마을의 학교 인공암벽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와 우글레고르스크, 솔로비유카 마을에서 온 40명의 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했다. 이들은 '등반 속도'와 '난이도 있는 등반' 두 종목에서 경쟁을 치렀다. 단체전에서 솔로비유카와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양팀이 동반우승했고, 우글레고르스크팀이 2위를 했다. 사할린 지역에서 공식적 암벽등반대회는 이번이 최초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만두 미식축제 시작

11월 25일(월)부터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만두와 그의 친구들> 미식마라톤이 시작되어 12월 8일까지 계속된다. 시내 13개의 카페와 레스토랑에서는 950루블리의 고정가격으로 축제 메뉴(3개 요리로 1세트)를 맛볼 수 있다.

미식마라톤의 목적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세계의 다른 유사한 요리들을 비롯해 좋아하는 요리의 다양한 조리방식을 소개하는 데 있다.

새고려신문

2025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5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계속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92,94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И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 향토박물관, <사할린한인>상설 전시관 준비 중

다음주 사할린주향토박물관에서 사할린한인에 관한 상설 전시관이 개관된다. 본사 **배순신** 기자는 이 전시관 개관 준비를 맡고 있는, 사할린한인연구로 잘 알려진 향토박물관 학술편집부장 **진울리아** 박사에게 상설 전시 개관 동기, 구성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 최근 몇 년 동안 사할린주 한인 협회에서 우리 향토박물관에 사할린한인에 관한 상설전시를 열었으면 하는 문제를 사할린주 정부에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 올해 연초에 월레리 이고레위츠 리마렌코 주지사는 사할린한인디아스포라 대표들과 만났을 때 박순옥 주한인협회 회장이 다시 이 문제를 내세워 사할린한인들의 역사와 문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전할 수 있도록 상설 전시에 대한 요청을 전했습니다. 리마렌코 주지사는 사할린한인들의 소원을 들어주었고 향토박물관은 전시관 개관 작업에 들어간 거지요.

전시회 준비는, 특히 상설 전시관 경우 복잡하고 긴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시 디자이너 작가를 찾고, 디자인 마켓을 만들 뿐만 아니라 박물관의 소장품들을 선택하

고, 높은 과학·박물관적 수준의 전시내용을 만들고, 주제·전시 계획서와 설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주향토박물관 유리 유리예위츠 알린 관장이 사할린한인 디아스포라 연구자인 저에게 맡겼는데 이미 몇 달 전부터 큐레이터로서 이 작업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상설전시회는 박물관의 제1호 전시관에서 '사할린한인'이라는 제목으로 열립니다.

1945년 이전 사할린한인 역사, 1945년부터 1991년까지 소련에서의 생활 시기, 1991년부터 현재까지 현대사 - 세 단계로 구분하여 연대기적 원칙에 따라 구성했습니다.

우리는 문화적 측면과 한인들이 사할린 다문화 사회의 삶에 미치는 영향의 특성, 섬에서 러시아인과 한인들이 어울려 사는 것,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는 민족 간 우정과 문화 공유 과정도 고려했습니다.

전시회 작업의 중요한 단계는 필요한 전시 품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향토박물관은 이 주제에 대한 연구를 장기적으로 진행해 온 지역 최고의 과학 및 박물관 센터 중 하

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품 대부분은 가라후토 시대와 소련 시대의 품목입니다. 현대 시대의 항목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현대 시대가 디아스포라 생활의 주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탁에 바로 응답하고 박물관에 현대 물품을 기증하시는 분들에게 신문 지상을 통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사할린주두마 임 유리 의원, 이름난 사할린 미술가 조성용 화백, 새고려신문사 배 빅토리아 편집장, '우리말' 방송국의 김춘자 국장과 이복순 기자,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두마 박 웨니아민 의원, 사할린주 명예 광부 조영제 어르신, 사할린주씨름협회 춘알렉세이 회장, '토르나도'스포츠클럽 리 파벨 회장,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의 신 울리아 과장과 김 예브게니아 교사, 사할린국립대 연문·역사·동양학 대학의 임 엘비라 학장과 코르네예와 인나 부학장, '오스토브'회사 권수용 사장, 사할린지역 연구자인 미하일 쉬웨르콤포브, '인복'스튜디오의 최 나탈리아 사장,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소속 '하



늘'타악기 그룹 송 알베르트 단장을 비롯해 수많은 동포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큰 도움을 주신 KIN(지구촌동포연대) 최상구 대표와 김중헌 교수에게 깊은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전시 공간의 제약이 있어 전하고, 반영하고 싶은 내용 모두를 이 전시에 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대두되는 주제가 전시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주제에 대한 과학적 연구작업과 박물관 유

물 수집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요하고 흥미로운 것을 대중화하기 위한 주향토박물관의 작업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전시회, 출판물 및 행사에서 많은 것을 다루겠습니다.

'사할린한인'상설전시관은 오는 12월 6일 공식적으로 열릴 예정이고, 개관 다음날부터 일반인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에 오셔서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일부 역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십시오.

사진: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 (엠.쿠로브 촬영)

이 모 저 모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올해의 주지사>로 선정

러시아 사회단체와의 소통연합회가 수여하는 <함부르크 평가> 정치상 심사결과 사할린주의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올해의 주지사>라는 칭호를 받았다고 '사할린' 국영통신사가 전했다.

<올해의 주지사>수상명단에 무르만스크주, 뇨고로드주, 쿠르간주와 캅차트카 변경의 지사들이 올랐다. 심사위원들은 사할린 지역의 제반시설 구축을 위해 연방 재정을 유치하고, 노후주택으로부터 이주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노력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 전략적 세션, '사할린 온라인 플랫폼' 구축, 최근 선거에서 발레리 리마렌코의 성공을 높이 평가했다.

<함부르크 평가> 정치상은 2016년에 제정되어 러시아 내와 해외에서 정치인이나 단체, 정치단체가 정치활동을 하는 동안 이들의 효율적 성과, 기술, 창의성을 평가해 수여한다.

발레리 리마렌코 признан губернатором года

По итогам политической премии "Гамбургский счёт", присуждаемой Росси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ей по связям с общественностью, гла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удостоен звания губернатора год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ГТРК "Сахалин".

В номинации также участвовали главы Мурманской, Новгородской, Курганской областей и Камчатского края. Жюри оценило успех Лимаренко на недавних выборах, его усилия по привлечению федерального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на развитие остров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реализацию программ переселения граждан из аварийных зданий, и социальные сети,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сессии, платформу "Сахалин.онлайн"

политическая премия "Гамбургский счёт" была учреждена РАСО в 2016 году. Её присуждают политикам, партиям, политическим группам и кандидатам в России и за рубежом, которые за время политических кампаний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результативность, технологичность и креативность.

사할린 스키선수, 러·중 동계스포츠 게임에서 국가대표로 출전

스키 점프 종목의 러시아 챔피언인 사할린의 제니스 모신수가 제 4회 러·중 청소년동계스포츠대회에 러시아 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 출전한다고 사할린스포츠부가 전했다.

내년 1월 8일부터 14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 우승을 두고 양국 340명의 선수들이 경쟁을

치른다. 10월에 러시아 선수권대회에 단체전에 참가했던 팀인 막심 콜로보브, 알렉산드르 바제노브, 니키타 로보다, 제니스 공은 797.5점으로 상대 팀에게서 7.4점을 앞선 가운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제니스 공은 유일하게 연령별 종목에서 출전할 수 있는 선수로서 2005년 -2009년 출생 성인 스키선수팀에 들어가 출전한다. 그는 앞으로 치열한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Сахалинец выступит за сборную страны на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их играх

Чемпион России по прыжкам на лыжах с трамплина сахалинец Денис Гон выступит в составе сборной России на IV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их молодёжных зимних играх.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победу на соревнованиях, которые пройду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 8 по 14 января, будут бороться 340 спортсменов из двух стран.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имеет очень перспективную сборную по данному виду спорта. В октябре, выступая в командн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на чемпионате России, Максим Колобов, Александр Баженов, Никита Лобода и Денис Гон завоевали золото с результатом 797,5 балла. Соперники остались позади на 7,4 балла.

Денис Гон единственный, кто смог пройти на Игры по возрасту. Он будет выступать в старшей группе лыжников 2005-2009 годов рождения. Предстоит столкнуться с мощной конкуренцией.

사할린 심리학자, <인와프로피> 전 러시아 경연에서 우승

모스크바에서 열린 <인와프로피(장애인 전문)> 제 4회 전 러시아 전문적인 성과 경연 결승전이 열린 가운데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신의 발렌티나 크루샤노와 심리학 교사가 우승해 영예의 1위 상을 러시아 연방 노동사회복지부 안톤 코짜코브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사할린주 사회복지부가 전했다. 신체 및 발달장애를 가진 장애아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400여 명이 경연에서 우승을 두고 경쟁하면서 사할린을 대표한 크루샤노와는 누구보다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프레오돌레니예(극복)' 장애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재활센터에서 심리학자이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주최 측은 경연에 4개 부문의 상을 제정했는데 결승전에 20명의 전문가들이 진출했다. 심사위원들은 발렌티나 크루샤노와가 진행하는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위한 신경교정 수업의 창의적 방법에 놀라워 했다.

보통 언어적 지시나 그림 및 사진을 포함해 1980년대부터 적용된 신경체조의 이론적 활동들이 이 수업 구성의 기본이 되었다. 발렌티나는 자신의 수업에서 재료를 더 단단하고

정시키는 점토로 모형만들기 수업을 이용했다.

2년간 이러한 1300여 개의 수업이 진행돼 276명의 사할린의 아동들이 참가하면서 이 수업은 이미 높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Сахалинский психолог победила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ИнваПрофи»

Психолог-инструктор Валентина Крушанова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торжественной обстановке из рук министра труда и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РФ Антона Котякова получила диплом за первое место IV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достижений «ИнваПрофи», финал которого прошел в Москве.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победу боролись более 400 участников, работающих с людьми с инвалидностью и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Однако лучше всех себя показала жительниц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Она работает психологом-инструктором по труду в 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м центре для детей и подростков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Преодоление".

Всего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дготовили четыре номинации. В финале их представляли 20 специалистов. Валентина Крушанова удивила жюри своей авторской методикой нейрокоррекционных занятий для дет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Основой для её разработки послужили теоретические работы по нейрогимнастике, применяемые с 80-х годов, которые обычно включают словесные инструкции или изображения. Сахалинка также использует на своих занятиях лепку из глины, которая помогает еще лучше закреплять материал.

За два года было проведено почти 1300 занятий, в которы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276 юных сахалинцев. Занятия уже показали высокие результаты.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문화의 수도' 칭호를 놓고 경쟁

유즈노사할린스크시가 <올해 문화의 수도> 연방 경연에 참가한다고 '고스우슬루기' 사이트에서 전해졌다.

경연 우승은 관광객과 투자자들과 협력자들을 유치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며, 도시에서는 대규모 문화행사들이 진행되고, 새로운 문화시설들이 개장되며, 문화 제반시설이 개발된다. 이 계획에 뮤지컬 코메디극장과 러시아 인류학 박물관 분관 건설이 예정돼 있다. <올해 문화의 수도> 선정에 대한 투표가 '고스우슬루기' 사이트를 통해 국민투표와 전문가의 평가라는 두 개 영역에서 진행된다. '고스우슬루기' 사이트에 계정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유즈노사할린스크시를 지지할 수 있다. **(8면에 계속)**

이민자 대표,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올해의 여성'경연대회에서 우승

해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올해의 여성'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22일(금) '2024년 올해의 여성'경연대회의 결과 발표와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행사 참가자들을 환영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은 우승자와 수상자들에게 축하하고 수년에 걸쳐 개최된 '올해의 여성'대회가 도시생활에서 중요한 행사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여러분들은 엄마로서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놀랍게도 동시에 창의적이고, 성공을 이루는 훌륭한 직원이자, 지도자이기도 하십니다. 이것은 확실히 재능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존경합니다. 시 행정부는 가족, 모성애, 아동의 성장기를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작하는 모든 일에 성공과 더 많은 행복한 순간, 복, 여유로움과 늘 기분 좋은 날을 기원합니다!"라고 전했다

이날 경연대회는 6부문('사회활동의 지도자', '일하는 여성', '가정적 화합의 수호자', '자녀들에게 온 마음을 다하다', '자비의 자매(간호사)', '문화와 여성')에서 수상자가 선정되는 가운데 18명의 우승자와 수상자들이 발표되어 시상했다.



'사회활동의 지도자' 부문에서는 '빅토리아' 장애인인권 비영리단체의 이민자(이 나탈리아) 대표가 우승했다.

이민자 대표는 수상 소감으로 "자선 분야에서 주된 보상은 단순히 사람들의 '감사합니다'라는 인사와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의 행복해 하는 눈빛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이 높은 평가와 인정을 받을 때 정말 기쁘고, 기분이 좋습니다. 모든 상은 모든 후원자와 도우미 및 자원 봉사자들의 공동 작업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모든 승리가 우리를 새로운 목표와 성취로 이끌거라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새고려신문은 이민자(50세) 대표가 하는 활동에 대해 올해 4월 12일호(기사 <이 나탈리아: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11월 15일호(기사 "특별한 아이들의 '행복한 엄마'")에 기사를 실었다.

(본사 기자)

(사진: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행정부 제공)

사할린국립대, 제3회 '아시아와의 대화' 국제학교 진행

11월 25일(월)부터 12월 2일(월)까지 사할린국립대학교에서 '우선순위 2030. 극동지역'국가기획 일환으로 '아시아와의 대화' 동계 국제학교를 진행한다.

지난해 11월에 처음으로 실시된 국제학교 프로그램은 사할린국립대 어문·역사·동양대학의 주최·주관으로 이번이 3번째 진행되는 가운데 대학 학생들과 교수진, 그리고 사할린 중등 및 고등생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번 국제학교에 러시아 연방의 주요 대학에서 온 49명의 학생들은 국립 연구대학 고등경제학교(모스크바), 파트리스 루뭄바 러시아 민족우호 대학교(모스크바), 사마라 국립연구대학, 모스크바 시립 사범대학교, 알타이 사범대학교, 엘친 초대 러시아대통령 명칭 우랄연방대학교, 암모소브 동북연방대학교, 태평양국립대학교를 대표했다.

지난 26일(화) 사할린국립대 행정관 대강당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사할린국립대 알렉산드르 사마르다크 총장, 사할린국립대 어문·역사·동양대학 임엘비라 학장, 모스크바국립언어대학교 번역학과 예카테리나 포홀코바 학과장 등이 참가자들을 환영하며, 이번 학교가 좋은 교류의 장으로 되고,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길 기원했다.

임엘비라 학장은 특히 멀리 서쪽에서 온 학생들에게 '전공 언어(중국어, 한국어, 일본어)의 국가들이 가까이 이웃해 있는 이곳 사할린에서 환영한다고 했다.

'아시아와의 대화'동계 국제학교는 창의적인 잠재력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재능 있는 청소년을 위한 지적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여건 조성을 목표로 하는 독특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과학적 지식과 업적의 홍보 및 대중화; 젊은이들의 직업 지도와 교육 진로에 대한 선택을 지원한다고 주최 측이 설명한다.

이번 학교 프로그램은 사할린국립대학교 및 모스크바 대학 초대 교수들의 강연, 실습 수업, 5개 언어를 다루는 '섬 경계' 외국어 경연대회(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그리고 외국인인을 위한 러시아어), 태권도 대회, '아시아의 맛 팔레트'미식 체험교실, 견학 및 문화행사로 구성되었다.



최종 행사들 중 하나로 11월 29일(금) '옥차브리' 영화관에서 'K-팝 댄스 페스티벌'축제를 연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사할린동포 2~3세 65명, 영주귀국 가족 상봉차 모국 방문

사할린 등 러시아에 거주하는 65명의 사할린동포 후손이 모국에 영주귀국해 살고 있는 부모나 조부모 등을 만나기 위해 11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했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진행하는 '사할린동포 2·3세 모국방문 사업'의 일환으로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단체입국하는 44명의 후손은 모두 사할린에 거주한다.

그외 러시아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후손 21명은 개별적으로 방한한다. 사할린과 하바롭스크, 모스크바 등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 2세는 54명, 3세는 11명이다. 이들은 한국에서 일주일에서 30일간 체류하면서 영주귀국해 살고 있는 부모나 조부모와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이번 모국방문은 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등으로 2019년 이후 중단됐다가 5년 만에 재개됐다.

재외동포청이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해 진행하는 이 사업의 수혜자인 후손들에게는 거주지와 한국 간 왕복 항공료, 공항에서 상봉 가족 거주지 간 이동 비용 등을 지원한다. ※ 이 사업은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 1세의 사할린 등 러시아 현지 2·3세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해 가족 간 만남



을 지원하고, 후손들에게 정체성을 확립하고 모국에 대한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실시됐다.

이상덕 청장은 "지난 5년 동안 중단됐던 모국방문 사업을 다시 시작해 영주귀국 사할린동포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오랜만에 재회할 기회를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이 사업은 우리의 아픈 역사로 인해 고통을 겪은 사할린동포를 보듬고,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래기 위해 재외동포청이 수행하는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보다 많은 사할린동포가 국내에 영주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등 폭넓은 사할린동포 지원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 정부의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사할린동포 2·3세 모국방문 사업뿐만 아니라 사할린동포 기념사업, 사할린동포 법률지원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재외동포청 제공)

사할린 차세대 대상 한식 쿠킹클래스 개최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영사출장소(소장 박상태)는 11월 14일 한인문화센터 강당에서 사할린주 한국어교사협회(회장 코르네예와 인나)와 공동으로 '사할린 차세대 대상 한국음식 쿠킹클래스'를 개최하였다고 출장소 사이트를 통해 전했다.

이날 쿠킹클래스는 떡볶이를 주제로, 이수연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관저요리사를 초빙하여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사할린 지역 학생들(일반학교 및 대학교),



한국과 모스크바 소재 대학교 출신의 교환학생들 및 교수진 약 60여 명이 참여하였다.

(사진: 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제공)

사할린주 정부, 특혜 의약품 구매를 위한 추가 자금 책정

(1면의 계속)

주지사는 건강 안내자들을 통해 처방이 연기된 의약품들을 신속히 보급하라고 지시하고, 만약 필요한 의약품들이 창고에 없다면 상업용 약국의 약품들로 제조해 공급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주간 인근 진료소로 인도하도록 지시했다.

주지사는 "현재 특혜 의약품 공급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으며, 그 효과를 건강 안내자들이 보여주고 있다. 무료처방 의약품 수요가 객관적으로 증가한 것은 좋은 소식이다. 내년에 우리는 사할린의 주민들이 더 오래 살고, 생활의 질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3분의 1 이상의 의약품 구매할 계획이다. 건강 안내자들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전하는 것은 자원봉사자

들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주민 3만8천 명이 특혜 의약품 획득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올해 이러한 의약품들을 공급하기 위해 주 예산에서 13억 루블리 이상이 배정되었다.

<건강 안내자>기획은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추진해 2023년에 시작되었다. 현재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진료소에 700명의 관리자들이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 15만 명을 돌보고 있다. 개인적 도우미들은 특혜 의약품을 받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의사 진료나 검사를 받도록 상기시키며,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На Сахалине открылись «Книжные мосты дружбы»

27 ноябр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етской библиотеке состоялось знаковое событие для всей культурной отрасли региона -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выставки «Книжные мосты дружбы: лучшие детские книги мира». Организатором мероприятия выступил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детская библиотека и АНО «Центр чтения»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На открытие собрались любители книг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 их числе -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Нонна Лаврик, а также участники международной школы «Диалог с Азией» (студенты из Москвы, Якутии, Алтая, Сахалина и т.д.), студенты Харбинского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и Пуса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Открыли выставку директор библиотеки Наталья Чаус и руководитель Центра чтения Наталья Петровская. Тепло поприветствовав гостей, они подчеркнули значение культурных обменов и укрепления дружественных связей между странами, сообщается на сайте библиотеки.

На выставке представлены 32 книги, вошедшие в почетный список детской книг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вета по детской книге (IBBY, всего коллекций 7 во всем мире, единственная коллекция в России находится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в специальной детской библиотеке им. А.С. Пушкина). Специальная детская библиотека предоставила для ознакомления книги из лучшей коллекции мировой дет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на китайском и корейском языках, собранной из разных уголков планеты. Эти произведения помогают лучше понимать культуру разных народов и способствуют укреплению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вязей.

В коллекцию входят сборники стихов, рассказов, социальные и исторические романы, характеризующие культуру и жизнь в Корее и Китае. Также на выставке представлены иллюстрации в традиционном



формате (акварель, тушь и т.д.), так и в формате современной цифровой живописи.

Одним из запоминающихся моментов программы стало чтение стихов на китайском языке студентами - носителями языка. Это добавило мероприятию особую атмосферу.

Затем декан переводческого факультета Московского лингвистиче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переводчик-кореевед Екатерина Похолкова подарила библиотеке книжные новинки и прочитала лекцию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перевода и межкультур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Лекция вызвала живой интерес у слушателей.

Выставка «Книжные мосты дружбы: лучшие детские книги мира»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до 27 января 2025 года.

(Подготовил Дмитрий Погудаев)
(Фото Ли Е Сика)

На Сахалине в третий раз проходит Международная школа «Диалог с Азией»

25 ноябр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тартовала Международная школа «Диалог с Азией», которую проводит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программы развития «Приоритет-2030. Дальний Восток».

26 ноября состоялось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на котором ректор СахГУ Александр Самардак, директор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Эльвира Лим, декан переводческого факультета МГЛУ Екатерина Похолкова тепло поприветствовали участников проекта, пожелали, чтобы школа стала хорошей площадкой получения новых знаний, общения и роста.

В этот раз на Сахалин приехали 49 студентов из ведущих вузов РФ: национальный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Высшая школа экономики», Россий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дружбы народов имени Патриса Лумумбы, Самар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имени академика С.П. Королева, Московский городской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Алта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Уральский федер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имени первого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Б.Н. Ельцина, Северо-Восточный федер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имени М. К. Аммосова, Тихоокеа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По словам организаторов, Международная школа «Диалог с Азией» - это уникальная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направленная на выявление и развитие творческого потенциала и создание условий для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и поддержки талантливой молодежи; пропаганду



и популяризацию научных знаний и достижений; оказание содействия молодежи 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ориентации и выборе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траектории.

В этот раз в программу Школы вошли лекции и практические занятия ведущих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 приглашенных спикеров; проведение конкурса по иностранным языкам «Островной рубеж» (английский, корейский, японский, китайский и русский язык, как иностранный). Прошли также спортивный Фестиваль по олимпийскому тхэквондо,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й мастер-класс «Вкусовая палитра Азии» (корейская и японская кухня), множество экскурсий и культур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Одним из заключитель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программы Международной школы «Диалог с Азией» станет областной фестиваль «KPOP Dance Fest»,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29 ноября в киноконцертном зале «Октябрь»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Работа Школы продлится до 2 декабря, но уже сегодня участники Школы говорят как им интересно на Сахалине.

(Наш корр.)
(Фото Ли Е Сика)

В Сахалинском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готовятся к открытию экспози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завершается работа над созданием постоянной экспози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О том, почему было решено создать эту экспозицию, что она будет из себя представлять, мы попросили рассказать заведующего научно-редакционного отдела музея Юлию Дин.

- В начале 2024 г.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я Игоревича Лимаренко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На этой встрече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Оксана Владимировна Пак обратилась к губернатору с просьбой и давним желанием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 об открытии постоянной экспозиции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в областном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которая позволит им на наглядном примере показывать и рассказывать об истории и культуре. Валерий Игоревич пошел навстречу пожеланиям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приступил к работе над созданием экспозиции.

Хочу сказать, что работа над экспозицией - сложный и долгий процесс. Требуется не только найти художника, создать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дизайн-макет, но и подобрать музейные предметы, создать концепцию на высоком научном и музейном уровне, тематико-экспозиционный план, написать тексты. Эту работу директор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Юрий Юрьевич Алин поручил мне, как исследователю 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я уже работаю над экспозицией как ее куратор.

Экспозиция будет располагаться в зале № 1 музея на первом этаже. Она будет называться просто -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ыстроена она по хронологическому принципу - три этапа истории корейце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ериод до 1945 г., период жизни в Советском Союзе с 1945 по 1991 г. и современный этап истории с 1991 г. по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е обошли мы вниманием и культурный аспект, и особенности влияния корейцев на быт сахалинского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го общества, и совместное проживание русских и корейцев на островах, процесс дружбы и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культур.

Важным этапом работы над экспозицией является подбор необходимых предметов. Да,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 один из ведущих научных и музейных центров области, который на долговременной основе ведет работу над изучением этой темы. Однако, большая часть предметов в наших фондах относится к японскому и советскому периодам. А главный период в жизни диаспоры - это, по моему мнению, современный период. По нему у нас практически не было предметов.

Тут огромную роль сыграли люди, которые живо откликнулись на наши просьбы и принесли в дар музею свои предметы. Это и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депута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Юрий Им, известный сахалинский художник Дё Сон Ен,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Виктория Бя, шеф-редактор «Уримал бансон» Ким Чун Дя и корреспондент «Уримал бансон» Ольга Ри, депутат городской думы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ениамин Пак, заслуженный шахте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ё Ен Де, президент Сахалин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ы «Ссирым» Алексей Чун, президент клуба «Торнадо» Павел Р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дет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Этнос» Юлия Син и Евгения Ким, директор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Эльвира Лим и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Инна Корнеева, директор компании «Остров» Гвон Су Ен, краевед Михаил Шерковцов, владелица студии «Инбок» Наталья Че, руководитель группы корейских барабанщиков «Ханыль» Альберт Сон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Огромная благодарность и коллегам из Кореи - большую помощь нам оказ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KIN» Чхве Сан Гу и профессор Ким Чжон Хон.



Многое из того, о чем хочется сказать и осветить, не войдет в экспозицию из-за ограничен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Однако мы сделаем все, чтобы основные вопросы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вошли в экспозицию, а научная работа и сбор музейных предметов по этой теме не будут останавливаться, работа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по популяризации этой важной и интересной темы будет продолжаться и многое мы осветим в последующих выставках, изданиях и мероприятиях.

Открытие планируется 6 декабря. И уже с 7 декабря постоянная экспози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будет доступна всем желающим - жителям и гостя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ходите в наш музей, чтобы воочию увидеть кусочек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Фото М.Курова)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РК провела церемонию памяти жертв принудительного труда

25 ноябр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ровело собственную церемонию памяти жертв принудительного труда в период японской колониальной оккупаци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посол РК в Японии Пак Чхоль Хи, а также девять родственников жертв собрались в месте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ских подневольных рабочих недалеко от золотых и серебряных рудников на острове Садо у западного побережья Японии. Сеул бойкотировал мероприятие, организованное накануне японски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в память о подневольных рабочих шахты Садо, включая корейцев, сославшись на разногласия, которые не удалось разрешить. Это, в частности, участие в церемонии заместителя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Японии, который ранее посетил храм Ясукуни - символ милитаристского прошлого. Проведение отдельной церемонии отражает твердую решимость РК не идти на компромисс с Японией по историческим вопросам.

С лидера оппозиции сняты обвинения в подкупе

Лидер ведущей оппозицион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Ли Чжэ Мён не виновен в давлении на свидетеля с целью получения ложных показаний по делу о нарушении избирательног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Такое решение вынес 25 ноября Центральный окружной суд Сеула спустя 10 дней после того, как приговорил Ли Чжэ Мёна к условному тюремному сроку сроком на один год по другому делу, связанному с нарушениями избирательног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в борьбе за должность губернатора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в 2018 году. Обвинение требовало для Ли Чжэ Мёна трёхлетнего тюремного срока. Ожидается, что оправдание частично облегчит юридические проблемы, с которыми столкнулся лидер оппозиции перед его ожидаемым участием в следующих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в 2027 году.

В РК вступят в силу новые меры стимулирования рождаемости

С 23 февраля 2025 года в РК вступят в силу изменения в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е,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стимулирование рождаемости. Согласно новым правилам, если к этому моменту оба родителя возьмут отпуск по уходу за ребёнком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ю не менее трёх месяцев, его общий срок увеличится с одного года до полутора лет. Изменения также касаются декретного отпуска. Если новорождённый попадёт в отделение интенсивной терапии из-за преждевременного рождения или малого веса, общая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дородового и послеродового отпусков будет продлена с текущих 90 до 100 дней. Кроме того, беременные женщины с высоким риском осложнений, включая многоплодную беременность и сахарный диабет, смогут сокращать рабочие часы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й беременности. Сейчас эта мера была доступна только на ранних сроках (до 12 недель) и в последние недели беременности (с 36-й недели). В случае выкидыша или рождения мёртвого ребёнка в первые 11 недель беременности отпуск составит 10 дней вместо нынешних пяти. Министр труда и занятости Ким Мун Су подчеркнул важность создания условий,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т родителям без затруднений совмещать работу и заботу о детях. Он также отметил, что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будет уделено поддержке уязвимых категорий граждан.

Число получателе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енсии достигло 7 млн человек

Число получателе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енсии в РК достигло 7 млн человек. Как сообщили 25 ноября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енсионной корпорации РК, данный показатель достигнут через 36 лет после ввода в действие пенсионной системы.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енсионная корпорация выплачивает 3 трлн 600 млрд вон в месяц. 833 тыс. человек получают более 1 млн вон, а 44 тыс. человек - более 2 млн вон. Как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енсионной корпорации Чон Тхэ Гю, более половины южнокорейцев старше 65 лет получают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пенсию. Продолжается работа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достаточного уровня жизни граждан РК пожилого возраста.

В Сеуле пройдёт фестиваль Seoul Winter Festa

Фестиваль зимнего света Seoul Winter Festa, который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осетили около 7,5 млн человек, пройдёт с 13 декабря по 5 января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Он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ся в таких районах Сеула как площадь Кванхвамун, ручей Чхонгечхон, площадь Сеула, культурно-выставочный центр DDP и колокольня Посингак.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полночное солнце Нового года» диаметром 30 метров поднимется за колокольней Посингак в момент ударов «новогоднего колокола». Свет будет распространяться от светодиодных браслетов, которые будут на руках 15 тысяч участников. На площади Кванхвамун вокруг рождественской ёлки высотой 14 метров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рождественский базар. **RKI**

Более 3000 профессоров Южной Кореи потребовали отставки Юн Сок Ёля

Более 3000 профессоров и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из 55 университетов и научных институтов Южной Кореи выступили с требованием отставки президента Юн Сок Ёля. Данная акция стартовала еще в конце октября, но постепенно набирает силу, охватив всю страну.

"Мы требуем, чтобы президент Юн немедленно покинул свой пост," - заявила в четверг 21 октября группа из 108 профессоров университета Тонгук в Сеуле. Одним из поводов стала проведенная 7 ноября Юн Сок Ёлем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я и общение с журналистами. Педагоги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беседа лишь усилила разочарование.

"Начав с извинений, двухчасовое выступление оказалось наполнено безнадёжностью и разочарованием," - добавили профессора.

Как и ожидалось, многим не понравились скандалы, связанные с первой леди Ким Гон Хи, а также нежелание Юна как-то конструктивно реагировать на это. В совместной декларации упоминаются скандалы, связанные с манипуляцией акциями Deutsche Motors, злоупотреблением роскошными товарами, вмешательством в управл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ом и манипуляцию общественным мнением через политических посредников, в чем подозревают Ким Гон Хи.

"Ни одно из этих подозрений так и не было разрешено," -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профессоров.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к кампании подключились 177 профессоров из престижного сеуль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Ёнсе, которые выпустили декларацию под названием "Вы больше не наш президент". Они призвали Юн Сок Ёля извиниться за "несправедливость, ошибки в управлении и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скандалы". По их словам, "администрация Юн Сок Ёля за два с половиной года правления показала себя некомпетентной, безответственной и безрассудной в использовании власти".

В схожей тональности оформлено и публичное обращение 140 профессоров же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хва столицы.

"Мы в гневе. Немедленно уйдите с поста. За два с половиной года правл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Юн Сок Ёля основы демократии стали более шаткими, благосостояние народа рухнет из-за бесконечной некомпетентности президента, а также постоянных скандалов вокруг него и его семьи", -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обращенном к Юн Сок Ёлю.

Протестное движение среди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высши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Кореи началось 28 октября с заявления профессоров университета Качхон. Инициатива быстро распространилась на другие вузы, включая Сеуль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Хангук, жен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Сунмён, университеты Ханянг, Корё, Кунмин, Кёнхи и другие. Согласно подсчетам,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в акц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трех тысяч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из 55 различных вузов страны.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Дважды войти в одну воду

Вашингтон, 24, ноября – ИА РУСКОР. Избранный президент США Дональд Трамп назначил Алекса Вонга, который во время его первого президентского срока участвовал в переговорах по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е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своим главным заместителем советника по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Ожидается, что после возвращения в Белый дом он может попытаться возобновить отношения с Пхеньяном.

Этот кадровый выбор был сделан на фоне предположений о том, что Трамп может возобновить личную дипломатию с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лидером Ким Чен Ыном, чтобы завершить незавершенное дело и решить проблему с ядерным оружием, которая усугубляется. «В качестве заместителя специаль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о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он помогал мне вести переговоры на саммите с лидером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м Чен Ыном», — сказал Трамп. «Алекс также руководил усилиями Госдепартамента по реализации стратегии «Свободный и открытый Индо-Тихоокеанский регион».

Когда Трамп был на посту, Вонг был вторым по значимости переговорщиком на переговорах о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Он участвовал в последующих переговорах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в Пхеньяне в июле 2018 года после первого в истории саммита между Трампом и Ким Чен Ыном в Сингапуре в июне 2018 года. Он также входил в состав группы по подготовке второго саммита между лидерами в Ханое в 2019 году. На посту в Госдепартаменте Вонг руководил кампанией США по решению ядерной и ракетной про-

блемы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ключая соблюдение санкций, противодействи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ю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и меры по сдерживанию и предотвращению незаконной кибернет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режима.

Наблюдатели говорят, что выбор Трампом Вонга на пост в Белом доме является хорошим предзнаменованием для возоб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и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хотя остается неясным, согласится ли Пхеньян на какие-либо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предложения со стороны Вашингтона, учитывая его растущее военное партнёрство с Москвой. Во время своей предвыборной кампании Трамп неоднократно хвастался «любимыми письмами» от Кима и своими личными связями с ним, повышая шансы на возобновление отношений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Он также сказал, что «ладить» с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лидером — «это хорошо». Трамп трижды встречался с Кимом лично, в том числе на первом саммите в Сингапуре в 2018 году. После саммита в Ханое в 2019 году, на котором не было заключено соглашение, значимые ядерные переговоры между Вашингтоном и Пхеньяном зашли в тупик.

Вонг получил степень доктора юриспруденции в Гарвардской школе права, где он был главным редактором Harvard Law Review и редактором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Он получил степень бакалавра в Пенсильван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Он является старшим научным сотрудником Гудзон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и занимал пост председателя Комиссии по обзору американо-кита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в сфере экономики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значенной Конгрессом.

Супермаркеты соревнуются в скорости доставки заказов

Сеул, 23 ноября – ИА РУСКОР.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еть супермаркетов E-mart запустила новую услугу, предлагающую доставку более 3000 товаров в течение часа, в том числе суши и свиную грудинку. Сейчас покупатели в филиалах E-mart в Вансимни и Гуро в Сеуле могут делать заказы через приложение VaemIn и получать свои покупки в течение часа. Это первый опыт E-mart на рынке быстрой доставки.

Рынок быстрой коммерции стремительно расширяется. Гиганты офлайн-торговли, традиционно известные своими большими парковками и широким ассортиментом товаров, внедряют быструю коммерцию, чтобы удовлетворить потребности потребителей, которым неудобно совершать покупки в магазинах. Платформы доставки, такие как VaemIn в Южной Корее, Uber Eats и DoorDash в США, расширяются, предлагая не только еду, но и товары перв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что ускоряет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быстрой коммерции. Быстрая коммерция широко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по всему миру. В США была введена общенациональная служба доставки рецептов за 30 минут, а в Индии компании конкурируют за то, чтобы доставлять лекарства за 10 минут. Быстрая доставка когда-то была синонимом доставки еды, а доставка продуктов и товаров для дома часто занимала весь день или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даже если заказ был сделан утром. Однако рост популярности доставки еды и развитие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доставки расширили рынок быстрой доставки. Один из представите-

лей отрасли отметил: «Молодые потребители, привыкшие к доставке еды, теперь считают доставку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слишком медленной и готовы платить 3000 вон за немедленную доставку. Этот спрос привлекает на рынок быстрой доставки все больше компаний».

VaemIn, крупнейшее южнокорейское приложение для доставки, в 2019 году представило сервис B Mart, предлагающий доставку свежих продуктов, товаров для дома и мелкой электроники в течение часа. Это стало началом его расширения за пределы сферы питания. Магазины шаговой доступности также перешли на быструю доставку: более 15 000 магазинов GS25 теперь предлагают эту услугу, а CU и 7-Eleven расширяют свои предложения по быстрой доставке. Kurly, известный своими ранними утренними доставками, также запустил услугу доставки в течение часа. Сотрудник E-mart объяснил: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мы тестируем сервис быстрой торговли в двух точках, чтобы повысить удобство для клиентов, и проанализируем результаты, прежде чем расширять его».

Эта тенденция характерна не только для Южной Кореи. Walmart, крупнейший в мире розничный продавец,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редлагает доставку в течение 30 минут в шести штатах США и планирует расширить эту услугу до 49 штатов к январю. Amazon также разрабатывает сервис доставки с помощью дронов в течение 60 минут.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правило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редства на закупку льготных лекарст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ополнительно выделило порядка 20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чтобы до конца года обеспечить потребность жителей в льготных лекарствах. На фоне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Проводники здоровья» увеличилось количество людей, активно использующих свое право на бесплатные рецепты. В связи с этим рассчитанные по аналогии прошлых лет запасы на складах выби- раются преждевременно.

Информация о возникшей ситуации прозвучала в ходе встречи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о штабом движения «Проводники здоровья». Там же оперативно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выделении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на обеспечение потребности пациентов в льготных лекарствах на этот год.

— Люди стали сталкиваться с задержками при получении льготных препаратов, в том числе и жизненно необходимых. Есть препараты очень дорогие, пенсионеры не могут себе позволить их купить. Мы пришли к вам за поддержкой, — обратилась к губернатору старший куратор проекта «Проводники здоровья» Ирина Троян.

— Бюджетные деньги на закупку препаратов были заложены в необходимом объеме. Однако, раз возник повышенный спрос на лекарства, его нужно оперативно удовлетворить — выдел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редства, пересмотреть систему менеджмента в поставке медикаментов, чтобы она осуществлялась более ритмично, — дал поручение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лаве региона доложили, что за текущий год спрос на льготные лекарства вырос на треть, из-за чего и возникла необеспеченная потребность.

— Потребность жителей в льготных медикаментах выросла почти на треть в сравнении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Также аналоговые препараты не всегда подходят людям — большой пласт обращений был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Сейчас мы работаем над управленческими ошибками. К настоящему моменту уже выделены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редства, произведена закупка, в которую вошли 71 наименование самых необходимых препаратов, определен график поставок,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Ющук.

Директор оптово-торгового предприятия «Фармация» Инна Гребенева сообщила, что препараты уже начали поступать на склады и оттуда передаваться в аптеки. Губернатор поручил оперативно выдавать лекарства по отсроченным рецептам через проводников здоровья. Если же необходимых препаратов еще нет на складах — организовать их выдачу с коммерческих аптечных полок либо направлять нуждающихся пациентов на терапию в дневной стационар.

— У нас стала хорошо работать система льготной поставки лекарств, свою эффективность показали проводники здоровья. Поэтому потребление препаратов по бесплатным рецептам объективно выросло, и это хорошая новость. На будущий год мы купим лекарств на треть больше, потому что хотим, чтобы сахалинцы жили дольше, а качество их жизни было лучше. Хорошо, что об этой проблеме мне сообщили проводники здоровья, значит, волонтеры живут интересами людей, — отмет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более 38 тысяч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ы имеют право на получение льготных препаратов. В текущем году на обеспечение их лекарствами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направлено более 1,3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Проект «Проводники здоровья» был запущен в 2023 году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егодня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700 администраторов диспансерного наблюдения взяли под крыло порядка 150 тысяч пациентов с хроническ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Персональные помощники помогают получить льготные лекарства, напоминают людям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осетить доктора или сдать анализы и адресно решают разные медицинские вопросы.

Жители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полу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газифицировать частные домовладения

Социальная догазификация охватила девятый район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еревести частные дома на газ полу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жители Долинского округа. Об исполнении плана догазификации на заседа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доложили губернатору Валерию Лимаренко.

— В Долинском районе работа началась недавно. Жители города Долинск, сел Стародубское, Сокол, Покровка полу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уже сейчас подготовить свои домовладения к приему газа. Всего за неделю исполнение плана по догазификации составило 86% в целом по региону. С задачей справились полностью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 Макаров —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энерге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митрий Куварин.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социальная догазификация также доступн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еще семи районах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 Охинском, Ногликском, Тымовском,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м, Макаровском, Корсаковском и Анивском.

— На каждой встрече с жителями мне задают во-

просы о газификации частных домов. Эта программа востребована, люди в районах ждут газ, потому что это надежное,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е и более выгодное топливо. Темпы работ необходимо наращивать, — подчеркну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грамма социальной догазификации действует в России с 2021 года. Она предполагает, что в газифицированны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газопровод-ввод бесплатно подводится к границам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граждан. Сахалинцам, которые хотят перевести свой дом на экологичное топливо, покрывают расходы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нутридворового газопровода и работы внутридомовой системы газоснабжения, монтаж и подключение оборудовани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умма компенсации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в этом году увеличена до 180 тысяч рублей. Муниципалитеты обеспечиваю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выплаты на цели догазификации участникам ВОВ, СВО и членам их семей, инвалидам и ветеранам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многодетным и малоимущим семьям, а также семьям, которые воспитывают детей-инвалидов.

С начала действия программы социальной догазификации на Сахалине голубое топливо получили 5331 домовладения, из них 1239 переведены на газ с начала 2024 года.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подключение частного дома к газу можно в центрах оказания услуг газораспределитель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на портал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слуг или на портале единого оператора газификации РФ.

Система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гает школьникам сделать выбор в пользу перспективной профессии

Региональ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детей 2024: от стратегии к тактике» открылась 25 ноябр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посетил площадки форума, на которых островные педагоги делятся опытом работы с подрастающим поколением по так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как, в частности, совреме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театраль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журналистика.

Сегодня в нашей стране уделяется огромное внимание развитию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школьных кружках по интересам дети уже не ограничиваются кройкой и шитьем или изготовлением аппликаций. Они изучают робототехнику, собирают беспилотные летательные аппараты и совершенствуют навыки управления ими, пробуют свои силы в журналистике, компьютерной графике, театре и многих других отраслях.

— Эта работа ведется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Успех каждого ребенка» нацпроекта «Образование». Знания и умения, которые наши дети получают в системе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нередко помогают им выбрать профессию, стать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м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Чем успешнее каждый житель нашей области, тем быстрее развивается регион, сильнее становится страна. Поэтому мы будем и впредь 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систему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создавать благоприя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развития талантов и склонностей юных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овышения квалификации педагогов, — сказал Алексей Белик.

В 2024 году по решению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было значительно увеличен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сферы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было закуплено нов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обучения по 138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м программам. Оно поступило в 64 школы в 17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В итоге создано более 3000 новых мест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режде темпы оснащения школ были в восемь раз ниже. В 2022-2023 годах формировались по 383 места, отмет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 Важную роль в развитии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грают передовые сферы высоких технологий. Им нужны кадры. А потому они помогают нам готовить педагогов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дальнейшем эти люди делятся полученными знаниями с детьми. Так мы вместе выявляем тех, кто питает интерес к технике, изобретательству, помогаем им развивать свои способности, становиться специалистом, — рас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В частности, компания «GS group» реализует проект по созданию школьных виртуальных музеев в каждом районе области.

— Мы подготовили педагогов 12 школ. И они уже собрали первые виртуальные музеи. Далее проект будет тиражироваться, разработка виртуальной реальности будет внедрена в уроки информатик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дети получают навыки работы, которые в дальнейшем им могут пригодиться в самых разных профессиях, связанных с информационны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 рассказал коммерческий директор компании «GS group» Андрей Азаревич.

Сахалинская компания «Тезона» совместно с област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ом образования реализует проект,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го островные школьники учатся проектировать и изготавливать беспилотные летательные аппараты, а также управлять ими.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ервой в стране приступила к подготовке школьников по эт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Теперь

по нашим стопам идут другие регионы. Беспилотники — это очень перспективная отрасль, спрос на подготовленные кадры постоянно растет. Наши школьники уже получили первичные навыки. Сейчас мы готовим их к международным соревнованиям с участие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тран БРИКС. Уверен, наши школьники покажут все, что умеют, докажут, что русские тоже не лыком шиты, — поделился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компания «Тезона» Дмитрий Митяев.

—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работает в интересах подрастающих поколений, помогает им найти свою дорогу в жизни. Вместе с участниками школьного медиацентра мы снимали этюд. В работе над ним также участвовали две девушки. В дальнейшем девушки при поступлении приложили это видео к своим портфолио. Сейчас одна из них снимается в короткометражках. Возможно, вскоре мы ее увидим в сериалах. Другая работает над документальными фильмами для телеканала «Звезда», — отметил учитель информатики, руководитель медиацентра школы № 8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Яков Мязин.

Завершилось мероприятие 26 ноября. Участники региональ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детей 2024: от стратегии к тактик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лекциях, мастер-классах и дискуссиях.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ла защита проектов участников первой межпредметной олимпиады «СахалинТех»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ыбрали лучшие практики в рамках первой межпредметной олимпиады «СахалинТех». В течение 10 дней 38 финалистов из семи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среди которых учащиеся 10-11 классов и студенты первых курсов, решали проект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е задачи в командах. Победители олимпиады получа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баллы при поступлении в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На защите проектов побыва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Я вижу перед собой ребят, которые добились больших результатов. В ваших руках будуще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 вас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учиться в лучших ВУЗах страны. А после обучения вернуться обратно и с полученными знаниями развивать регион. Одна из главных задач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 создать условия для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молодежи. И могу с уверенностью заявить, ваши знания и навыки будут востребованы здесь, дома,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Цель этой олимпиады — заинтересовать молодых людей инженерными профессиями. Участники прошли несколько этапов, в том числе решали открытые задачи. Это позволило каждому из них определить наиболее подходящее направление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В финал вышло более 30 школьников и студентов средних специальны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 Впервые совместно с Сахалински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мы проводим межпредметную олимпиаду. Важно, что более 700 участников смогли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данном мероприятии, а лучшие из лучших, вышли в финал. К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рограмме подключились преподава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педагогов Русатома 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Наши ребята работали над проектами в течение 10 дней. И сегодня лучшие будут награждены. Важно отметить, что по индивидуальному зачету участники получа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баллы при поступлении в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 добавила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манды работали над проектами в своих профилях: участники направления «Беспилотные системы» занимались сборкой и пилотированием БПЛА, а команды по профилю «Климат и экономика мирового океана» разработали эко-школы. Группа по водородной энергетике проработали сценари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водорода в различных отраслях. Участники направления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создали чат-бота, который помогает учащимся осваивать сложные темы в школьных предметах, предоставляя теорию, упражнения и тесты.

— Наш проект — это заказ от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Он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бы создать и разработать чат-бота, который работает как виртуальный ассистент. Он обрабатывает текст вопроса и находит наиболее подходящий вариант ответа. Основная сложность была в разработке и написании кода и в развитии нашей базы данных, так как там очень много информации. Я считаю, что наш проект не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министром образования, его также можно применять в других сферах, думаю, он может иметь большую важность в нашем регионе, — поделился мнением Виталий Ким, участник олимпиады «СахалинТех».

Отметим, олимпиада «СахалинТех», стала важной площадкой для выявления талантливых молодых людей,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х в инженерных науках.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олимпиады отобрали лучших участников для формирования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лабораторий Центра «Будущее Сахалина» и поступления в СахГУ.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 우리가 사할린으로 간 이유 2

(전호의 계속

일본의 군국주의화는 군사 및 경제적 상황을 극대화 해 노동 자원의 급격한 증대를 필요로 했고 이는 한반도에서 충당했다.

일본의 군국주의화는 군사 및 경제적 상황을 극대화 해 노동 자원의 급격한 증대를 필요로 했고 이는 한반도에서 충당했다.

초기 일본 식민권력은 과대한 약속을 하면서 '달콤한 말로' 자원 모집을 하는 형태로 이주를 진행했지만 이것으로는 필요한 인적 자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었다.

하지만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징집의 성격이 강제 이주 형태를 띠게 되면서 동원 양상을 달라졌다. 소위 군수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필요한 노동자 인원을 일본 정부에 요청하면 1)모집 2)관공서의 취업 알선 3)징용에 의한 동원 등으로 되어 있다.

박득수의 첫 사할린 나들이



▲ 박득수와 딸 중인 (1940). (사진= 박승의 제공)

전라도 무주에서 살던 박득수는 16살 어린 나이에 누나 박봉순이 살고 있는 사할린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일제 토지 조사 사업에 의해 대대로 부치던 땅을 빼앗기자 그는 화병을 얻어 졸지에 아버지를 잃게 되고, 형님마저 큰집에 양자로 들어가게 됐다.

당시 피폐해진 조선의 농촌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하였다. 박득수는 강제 모집에 속아 사할린에 끌려간 누나가 있는 곳에 가면 무언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만 같았다.

박득수는 혼자 계시는 어머니가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한 방책으로 일본 교장 집에 가사도우미로 맡겨 놓고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가라후토로 향했다.

— 어머니! 내 누님한테 갈래! 여기서 할 일이 너무 없어서 못 견디겠어.

왜놈들 때문에 우리 조선 사람들은 죽을 지경이야!

— 니 아직 어린데 혼자 낫선 데서 어떻게 살라고?

— 어머니! 가라후토에서 2년만 일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또 거기 누님 있잖아. 어머니, 걱정마! 꼭 2년만 갔다 올게!

늦은 가을이었다. 시커먼 구름이 하늘을 덮었고 비가 올까 말까 했다. 마치 자연도 박득수의 기분에 동정하는 듯...

김은 연기를 내뿜으면서 기차는 전라북도 무주에서 출발하여 다음 날 새벽에 부산역에 도착했다. 부산 항구는 싸늘했다. 때는 1931년 동짓달 그믐이었다.

먼 동해바다에서 불어오는 축축한 바람은 습기로 말미암아 눅눅해진 얇은 외투를 입은 부산항에 도착한 득수에게 뼈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다. 부두에는 몇 백 명의 젊은 남자들이 승선을 기다리고 있었다. 배가 부산항을 출항할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박득수는 저 멀리에서 반짝이는 항구의 불빛을 바라봤다.

나는 당시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시 한편을 실어본다.

잘 있거라 나의 조국!
귀여운 삼천리 금수강산!
출렁이는 바다 물결!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버리고
무얼 찾아 이국 땅을 향하리까?

다음날 박득수는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동경으로 가는 기차를 갈아탔다. 동경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 집에 가서 구경도 하고 하루 쉬고 다음날 동경을 떠났다.

1923년 9월 1일 관동대지진 후에 급속도로 근대화를 달성한 도쿄의 모습, 즉 카페나 댄스홀, 영화관, 유곽 등 향락적인 거리의 모습은 너무나 환상적이었다. 일제강점기 빈곤에 시달리거나 일본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조선 사람들의 비애를 체험한 박득수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광경이었다.

북해도의 사할린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동경에서 기차를 타고 아오모리까지 갔다. 겨울 바다는 사할린으로 들어가는 배를 마구 흔들었다. 사할린의 오오도마리(현재 코르사코프) 항구에서 매형이 보낸 일군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할린은 쌓인 눈과 추위로 박득수를 맞이했다. 누나가 살고 있는 마누이라는 촌은 오찌아이(현, 돌린스크시)에서 한 130리 떨어진 두메산골이었다. 발구(말이 끄는 눈썰매)를 타고 5시간 이상을 매서운 바람이 부는 눈길을 헤치면서 나아갔다.

박득수는 이렇게 많은 눈을 처음 봤다. 참 신기했다. 조선에서는 눈이 이렇게 많이 쌓이지 않는다. 그래서 때로는 발구(마소에 매워 물건을 실어 나르는 큰 썰매)에서 내려 눈길을 걷기도 했다.

박득수는 열여섯 살 어린 나이에 정든 고향을 떠나 사할린에 들어가서 산중에 사는 누나 집에서 거의 머슴살이를 하게 됐다. 몇 년 후 힘든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가기로 결심했다. 누나가 밥은 먹여 주지만 옷도 안 사주고 돈도 안 주고 하니까 더욱 놀랐을 수가 없게 됐다.

박득수는 돌린스크 시내로 내려왔다. 거기서 모집으로 들어온 조선 사람들을 만나 같이 잡일을 하게 됐다. 어른들과 같이 먹고 자며 정이 들어 의형제를 맺으면서 지내게 되는데 박득수가 가장 막내였다.

5년 후 박득수는 글도 아는 정직한 청년으로 의형제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됐다. 장가 갈 나이가 되자 가장 맏형이던 고 오지상의 권유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다.

"너 여기 있지 말고 한국에 나가 가주고 장개 들라. 여기서는 여자들이 없다 보니까 일본 여자한테 장개 가지 말고 한국 가서 장개 들어 가지고 오라. 우리는 조선에 쳐도 있고, 자속도 두고 와서 이렇지마는..... 너는 이렇게 해서 나이 어린 게 안 된다. 고향에 가서 장가 들고 홀로 된 어머니 모시고 살어라"

24살 청년 박득수는 8년 만에 조선에 돌아와 집안 어른의 중신으로와 결혼하게 됐다.

[글 = 박승의 전 사할린 국립대 교수]

(2024.10.30)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재외동포청, 국내 동포 정책 수립을 위한 각계의견 듣는다

12월6일 서울 여의도서 '정부-학계-시민단체와의 대화' 첫 개최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오는 12월 6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루나미엘레(서울 CCMM 빌딩 12층)에서 국내 동포와 관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에 앞서 학계의 전문적인 시각과 시민 사회 단체의 현장 경험 및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정부-학계-시민단체와의 대화'를 개최한다.

행사는 이상덕 청장의 환영사와 함께 총 3개의 세션으로 마련됐으며 모두 26명의 연사와 패널 등이 참석해 발제와 토론을 펼친다.

'국내 동포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의 제1세션에서는 명승환 인하대 교수(前 한국정책학회회장)를 좌장으로, 객석석 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 원장, 다산경제연구원 김재호 박사가 발표하고, 이경주 인하대 교수, 이양복 고려대학교 특임교수, 강정향 한국고용복지지원연구원 외국인정책연구센터장이 토론에 나선다.

이들은 국내 동포를 위한 법·제도 중 '재외동포비자(F-4)'와 '재외동포 방문취업비자(H-2)'의 통합과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제2세션에서는 '국내 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 확산 방안'이라는 주제를 놓고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가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우 한성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용필 동포세계신문대표가 발제하고, 송석원 경희대 교수, 정영순 대한고려연합회 회장, 이영근 재외동

포협력센터 이사가 토론을 진행한다.

마지막 세션은 임영상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의 진행으로 '국내 동포 정착을 위한 정책 대화'를 주제로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자유로운 대화를 이어간다.

지자체에서는 인천광역시(디아스포라유산과)와 광주광역시(외국인주민과)가 참여하고, 최상구 지구촌동포연대 대표와 임미은 선일중학교 교사, 국내체류 동포 단체의 대표(김영수 (사)너머 고려인문화센터, 김호립 전국동포연합회, 김미정 중국동포연합회중앙회, 정영순 대한고려인연합회, 권경석 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 유환일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 차에카테리나 인천고려인엄마들단체)등이 정책 대화를 펼친다.

일반인도 2024 재외동포 정책 학술포럼 공식 홈페이지(www.okaforum2024.kr)를 통해서 사전 등록하면 현장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행사 당일 재외동포청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도 모든 세션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계획이다.

이상덕 청장은 "이번 행사는 재외동포청 출범 후 처음으로 국내 동포가 정책 대상에 포함되었다"라고 하면서 "국내 외국인 동포의 증가, 고령 동포의 모국 귀환 등 정책 수요 확대를 고려하고, 정부·학계 전문가·시민단체 그리고 일반 국민 등이 제기한 다양한 의견을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국적을 뛰어넘어 제주에서 '한민족' 확인하는 시간

쓰는 말도 국적으로 다르지만 '한민족'이라는 공통점과 문화예술로, 청소년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국제교류 활동이 제주에서 열렸다.

'2024 해외동포청소년 문화예술교류캠프 - 따로 또 같이'(이하 따로 또 같이)가 24일 제주목 관아 앞 마당에서 개최한 공연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따로 또 같이'는 (사)제주한문화네트워크가 주최·주관하고 제주두루나눔이 주관한 국제 교류 활동이다. (사)제주한문화네트워크는 2004년부터 일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러시아 등에 분포한 해외동포들과 제주의 '입춘굿 탈놀이'를 포함한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교류를 이어왔다.

2018년에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일본 지역의 한인 청소년들을 제주로 초청한 '따로 또 같이'를 처음 개최했다. 이후 코로나19 유행으로 중단했다가 올해 두 번째로 개최했다. 올해 행사는 제주도, 제주도교육청, 충북교육청,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원, 탐라공화국 등과 함께 진행했다.

올해는 해외동포 청소년으로 러시아 에트노스 예술학교 재학생 20명을 초청했다. 에트노스 예술학교는 러시아 사할린에 위치한 국립 인정 예술학교로, 2016년에 러시아 연방 최고 예술학교 50선에 꼽힌 바 있다. 무엇보다 학교 안에 '한국전통예술학과'를 운영하고 있고, 재학생 상당수가 러시아 한인 3~4세이다.

러시아 에트노스 예술학교 학생들은 22일부터 23일까지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방문, 박물관 방문, 제주목 관아 한복체험, 제주 청소년들(제주 문화클래스 청소년팀)과의 교류, 제주 별꽃학교 초청 공연, 탐라공화국 탐방, 운동회 등을 경험하면서 특별한 추억을 남겼다.

24일 공연에서 러시아 에트노스 예술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배운 갈춤과 풍물을 선보였다. 한국 청소년들 못지않은 실력에 관객들은 큰 박수를 보냈다. 공연에 화답하고자 제주에서는 하날



'2024 해외동포청소년 문화예술교류캠프 - 따로 또 같이'의 교류 공연이 24일 제주목 관아 앞 마당에서 열렸다. ©제주의소리

오름 어린이 풍물단, 노형 SDC댄스학원 소속 초등 공연팀 'B.Ambi', 제주두루나눔이 공연을 선보였다.

2018년 제주를 방문했을 때는 에트노스 예술학교 재학생이었지만, 지금은 사할린 예술전문대 재학생으로 후배들을 인솔한 윤옥희 씨는 [제주의 소리]와 만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풍부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어 정말 즐거웠다. 주최하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제주 청소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을 찾아서 제주에 대해 자세히 알게 돼 기억에 남는다. 오일시장에서 맛본 감귤도 정말 맛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 율리아 에트노스 예술학교 한국전통예술학과 총괄 담당 교사는 "전 세계에 한인 동포들이 살고 있는데, 러시아 한국인 학생이 한국 학생들과 만나서 문화를 알고 교류하는 목적으로 이번 캠프에 참여했다. 러시아에서는 한국 문화를 이론으로만 배울 수 있는데, 직접 와서 느끼는 경험이 좋은 기회였다. 특히 제주를 잘 모르는 학생들도 제법 있어서 더욱 흥미로운 시간이었다"면서 "이번에는 에트노스에서 학생 20명이 왔는데,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제주에 와서 한국 문화와 역사를 알고 가길 바란다"고 소감을 남겼다.

(출처: 제주의 소리)

이 모 저 모

(2편의 계속)

Южно-Сахалинск борется за звание Культурной столицы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частвует в федеральном конкурсе "Культурная столица год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на портале Госуслуги.

Победа привлечет в город туристов, инвесторов и партнеров. В городе проводятся масштабные культур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открываются новые культурные объекты и развиваетс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В планах строительство театра музыкальной комедии и филиала Российского этнографического музея.

Голосование проходит в двух направлениях: народное голосование на портале Госуслуг и экспертная оценка. Поддержать Южно-Сахалинск может любой желающий с подтвержденной учетной записью на Госуслугах.

Сахалин 축산농가 3가구, 사업아이디어 실현에 장려금 획득

아니와, 우글레고르스크, 돌린스크 지역의 축산농가들이 가족농장개발을 위해 장려금을 받게 된다고 сахалин주 농축산부가 전했다.

농장 운영자들은 양계농장사업, 축산가공을 위한 작업장 개건 및 소 사육장을 위한 건조저장고와 채소저장고 건설을 위해 장려금을 사용하게 된다.

지난 5년간 19명의 축산업자들이 장려금을 받았다는 점이 주목되는 가운데 이러한 명목으로 3억9천만 루블리가 배정되었다.

Три семейные фермы Сахалина получают гранты на реализацию бизнес-идей

Фермерские хозяйства из Анивского, Углегорского и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ов получили гранты на развитие семейных ферм.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

сельхоз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Фермеры потратят деньги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омещения для содержания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птицы, реконструкцию цеха по переработке мясной продукци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ткормочных площадок для крупного рогатого скота и возведение овощехранилища.

Отметим, что за последние пять лет гранты получили 19 фермеров. На эти цели выделили около 39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리마렌코 주지사, <사할린의 심장> 새 음악 앨범 녹음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가 이미 고향이 된 사할린에 대한 음악 앨범을 '사할린의 심장'이란 제목으로 출시했다. 노래들은 인기 대중가요 서비스에 등장했고, 앨범에는 총 6개의 곡이 수록돼 있다. 모든 노래들은 사할린의 특징과 자연, 익숙함을 주제로 하고 있다. 앨범 겉표지는 아니와의 등대로 장식했다.

수록된 곡들의 장르는 '러시아 팝음악'이며, 몇 개의 곡들은 비소츠키의 인기곡들에서 보이는 음유시인의 음악을 연상시킨다. 리마렌코 주지사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 창작에 관심을 가져왔다고 한다.

예전에는 데뷔 앨범으로 10곡이 수록된 <나는 비행사가 될거야>를 발표하기도 했다.

Губернатор Лимаренко записал новый музыкальный альбом «Сердце сахалинца»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ыпустил музыкальный альбом про ставший уже родным регион и назвал его "Сердце Сахалина". Композиции появились на популярном музыкальном сервисе.

Всего в альбом вошли шесть треков. Они посвящены сахалинскому характеру, природе, привычкам. Обложку украшает маяк Анивы.

Жанр заявлен как «русская поп-музыка», но присутствуют некоторые детали, которые напоминают бардовскую музыку, репертуар Высоцкого. Стоит отме-

тить, что губернатор Лимаренко увлекается музыкальным творчеством с юности.

Ранее гла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ыпустил свой дебютный альбом под названием «Я бы лётчиком стал...». В него вошли почти два десятка композиций.

사할린과 쿠릴열도 주민들, 올해 보석 구매에 12억 루블리 이상 지출

사할린주 주민들이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기간에 보석 구매에 12억 루블리를 지출했다고 유명 보석회사 중 한 곳이 전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사할린과 쿠릴열도 주민들은 14% 적게 보석을 구매했고, 2024년 9개월 동안 총결에 따르면 사할린 지역은 극동연방관구에서 보석 구매 순위 7위를 차지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보석류의 평균가격은 1만3,444루블리로 지난해보다 16%가 비쌌다. 사할린주에서 보석류의 평균가격은 22% 오른 1만2,162 루블리로 주변 지역들 가운데 성장은 1위를 차지하고 러시아 전 지역들 중에서 구매율은 4위를 차지했다.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в этом году потратили на ювелирные украшения более 1,2 млрд рублей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период с января по сентябрь 2024 года потратили на ювелирные украшения более 1,2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одной из известных ювелирных компаний.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потратили на украшения на 14% меньше. По итогам 9 месяцев 2024 года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занял седьмое место в ДФО.

Средний чек на ювелирные украшения в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е составил 13 444 рубля, что вы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16%.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редний чек на ювелирные изделия увеличился на 22% и достиг 12 162 рубля, заняв первое место по динамике роста среди регионов округа и четвертое по размеру среднего чека по всей России.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5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25 г. — 692 руб. 9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l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